

제 3회 양성평등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결과

* 금상: 이준호·안민성·위대량(전기·전자·통신공학부)



일본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일정 중에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조금은 의아하게도

운전석에서는 부인이 조수석에서는 아이를 안은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차량

트렁크를 열어 앉을 자리를 마련하더니, 갓난아이의 아빠는 아이에게 능숙하게 젖병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 은상: 이아름(컴퓨터공학부)



정해진 것처럼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고정관념인 남자는 파랑, 여자는 빨강이라는 색깔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자는 취지의 사진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색칠한 화장실 픽토그램입니다.

✧ 은상: 최현덕(산업경영학부)·김경민(디자인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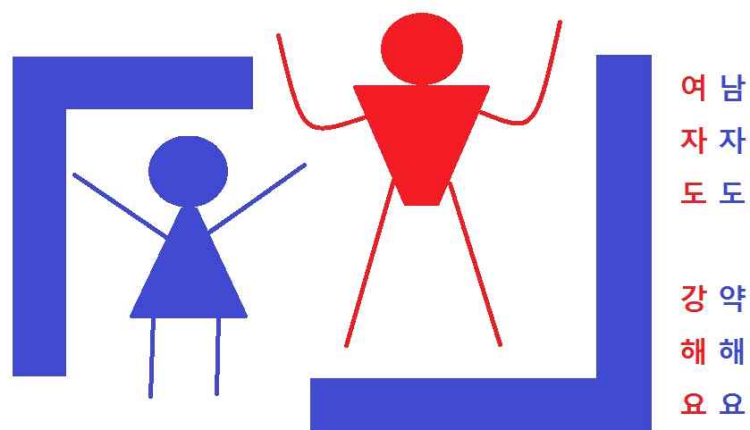
교집합의 의미는 다른 두 개의 집합 중 겹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개념에 적용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은 남자와 여자를 합친 그림, 즉 같아야만 교집합때 하나로 나올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같다는 의미를 도출한 작품입니다.

✧ 동상: 김현찬(산업경영학부)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쳐다보지 않으면 서로는 같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진 속 마주한 손처럼 남과여가 서로 마주한다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 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보고 성 평등을 인지해 양성평등의 시대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동상: 김대검·유재형(전기·전자·통신공학부)



성평등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위 포스터는 그 동안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편견을 역으로 그렸습니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강하고 약하고는 남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상: 한우근(기계공학부)



보통 사람들은 중성적인 느낌의 영화배우 틸다 스윈튼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되면 이 사
인의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틸다 스윈튼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기를 잘하는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성별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 능력을 생각하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를 일깨워주고자 이와
같은 작품을 출품합니다.